

해남, 서남권 교통중심 청사진 ‘운곽’

대규모 SOC 사업 가속도

광주~완도 고속도로 ‘탄력’

2024년 첫 철도 개통 순항

해남군의 대규모 SOC 사업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서남권 교통중심지 해남의 청사진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26일 해남군에 따르면 광주~완도 고속도로 사업 1단계 구간에 2023년 사업비로 1,780억원이 확보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되고 있다.

광주 서구~강진 성전 51.11km 구간의 1단계 사업은 오는 2025년 개통을 목표로 70%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2단계 사업인 강진 작전에서 해남 북평 구간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된 가운데 군은 1단계 사업과 병행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꾸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완도 고속도로 사업은 총연장 88.61km, 4차선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약 3조 4,000억 원이 소요되며, 광주 서구 벽진동~강진 성전 1단계, 강진 작전~해남 북평 2단계(37.5km)로 나눠 추진 중이다.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해남 어디서나 30분 이

내 고속도로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현재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해남~광주간 소요시간이 40분 안팎까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고속도로가 땅끝까지 이어지는 남북구간을 잇는다면 해남 최초의 철도는 동서구간을 연결한다.

1조 6,35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보성~해남~목포 임선 82.5km를 연결하는 남해안 철도가 2022년 12월말 기준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해남구간은 12.54km로 터널 4개소와 교량 3개소 등 노반공사와 함께 계곡면 가학리에 기차역이 들어선다. 전철화 사업과 연계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으로 2024년 해남에서는 처음으로 철도길이 열린다.

군은 땅끝해남역이 지역 관광의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색에 맞는 역사 디자인을 반영하는 등 개통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철도건설이 완료되면 보성~목포 소요시간이 현재 2시간 9분에서 50분으로 79분 단축되는 것은 물론 경부선과 호남선을 연결해 이용객 편의 개선 및 지역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남부권에서도 국도 77호선 마지막 연결 구간인 화원~신안 압해를 잇는 해저터널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현재 공정율 8%로 해저터널 2.73km 굴착을 위한 토공 작업 중으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남 화원~목포 달리도 구간 해저터널을 포함해 총연장 13.49km가 연결되면 서해안고속도로, 무안국제공항고속철도와 연계해 관광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지방도 803호선인 목포구등대~양화간 도로가 2024년 4월 준공 예정으로 화원 매월리를 시작으로 목포구등대~장수리~오시아노 관광단지까지 해안도로 약 23km를 잇는 인프라가 구축된다. 지난해 12월 준공한 솔라시도 기업도시 진입도로와 쌍축을 이뤄 오시아노 관광단지, 기업도시 활성화에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이와함께 해남 마산~산이 간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설계 진행 중이고, 해남읍에서 대흥사 구간을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2단계 사업이 착공하는 등 지방도 확충 사업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민선 7기에 시도를 건 각종 SOC사업들이 속도를 내면서 민선 8기 해남의 미래 구상이 더 넓어졌다”며 “SOC 사업들을 기반으로 더 가까워진 해남이 서남부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병태 기자

“군민 대변하는 의회 만들겠다”

2023 시혜 설계

강찬원 영암군의회 의장

농업경영 안정지원 확대

“영암군의회는 그동안 축적한 의정 경험과 6만 군민의 뜻을 받들어 올해 5대 의정지표를 가지고 군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군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강찬원 영암군의회 의장이 신년사를 통해 각오를 밝혔다.

강 의장은 우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면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의회,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의회, 그리고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가 돼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공감하며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군 집행부와도 충분한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민하고 영암군을 위해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며 협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농업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정 운영 방침을 밝히며, 농·특산물 위기 극복을 위해 농업경영 안정지원을 확대하고 농·특산물 식품가공과 안정적인 유통·판매의 다각화 및 쌀 대체 작물 재배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인구의 지속적인 외부유출로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역의 주력 산업인 조선업이 호황기를 맞아 활성화되고, 노후화된 대불 국가산업단지 대개조사업 추진으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 신산업을 선도해 나가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경제 회복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데 희망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정주 여건 개선과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인구유입과 고용창출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와 함께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영암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코로나19와 급변하는 세계경제는 우리 삶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고유가와 물가 상승, 가파른 금리 인상 등으로 군민과 지역경제는



참으로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시간 속에서 군민들을 향한 세심하고 따뜻한 보살핌이 절실한 때라고 짚었다.

그는 이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서 소외받는 이들이 없도록 집행부와 협력해 촘촘한 사회 공동체 망을 형성하고 다양한 복지정책을 발굴해 빈틈없는 복지로 군민 여러 분과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밖에 “견제와 감시·협력을 바탕으로 기본에 충실한 의회가 되도록 이끌어 나가겠다”면서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한층 더 강화시켜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면서, 군민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기본과 상식이 통하고 군민 모두가 만족해하는 군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행부와 긴밀하고 조화로운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상호보완을 통해 우리 지역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기에 더해 “우리 지역에 맞는 정책 개발을 위해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더욱 확대하고,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겠다”며 “각 분야의 전문가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며, 전문 교육과 선진사례 연구로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조만간’ 프로젝트 배우 모집

강진문화재단 내달 2일까지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은 오는 2월2일까지 ‘조선을 만난 시간(이하 조만간)’ 프로젝트’에 참여할 배우를 모집한다.

사외재 저자거리에서 2019년부터 시작한 조만간 프로젝트는 강진을 대표하는 다산 정약용 등 역사적 인물을 모티브로 만든 주민 참여형 문화 관광 콘텐츠이다.

사외재를 배경으로 마당극과 저자거리 곳곳에 재현 꼭지 코너를 운영할 계획으로, 강진군민이 직접 배우로 나서 관광객을 맞이한다.

만 14세 이상 강진군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강진군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이력서를 작성해 이메일(gjct7999@naver.com) 혹은 문화관광재단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서류모집 결과를 공고 후 오디션을 거쳐 공연배우와 재현배우를 최종 선발한다. 합격자는 ‘조만간 프로젝트아카데미’를 통해 연기·안무 교육과 문화 해설 및 고객 서비스 교육 등을 받는다. /강진=한태선 기자



완도를 망남항 전경.

/완도군 제공

완도, 어촌 신활력 증진 100억 투입

완도군이 최근 해양수산부 주관 ‘2023년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5년간 지속가능한 수산업·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 등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 넘치는 바다 공동체 구현을 위한 4대 전략을 세우고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그중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은 전국 어촌을

‘경제 플랫폼, 생활 플랫폼, 안전 인프라’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어촌의 정주 여건 및 생활 편의성을 개선한다. 38개 자치단체 사업을 평가했으며, 완도군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내년부터 4년간 100억 원을 투입해 망남리의 사회·경제·지리적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한다. /완도=최규옥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구경석 은광폐차장 대표, 강진군에 성금

강진군 성전면에 있는 은광폐차장 구경석 대표가 최근 성전면에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200만 원을 기탁했다.

구 대표는 매년 꾸준히 성금을 기탁하며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왔다.

구경석 대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가 이어지고

있어, 지쳐있는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되고자 기탁했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재희 성전면장은 “꾸준히 기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매년 성전면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기부를 실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이러한 나눔이 모여 소외된 분들의 마음에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주)대한세라믹스, 취약계층 후원금

(주)대한세라믹스(대표 이종근)가 최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는 뜻과 함께 노사 협의를 거쳐 모금한 성금 300만원을 영암군 삼호읍에 기탁했다.

대불산단 내에 있는 (주)대한세라믹스는 1992년 설립돼 고급 내화물에 사용되는 다양한 내화재와 연마재, 전자 재료용 특수 알루미늄을 생산하

는 전문기업으로서, 수년째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성금 기탁에 앞장서 오고 있다.

이번에 기탁한 성금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영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삼호읍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특화사업에 뜻깊게 사용될 예정이다.

/영암=최복섭 기자



담양교육청, 겨울방학 글로벌 영어캠프

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숙)은 최근 관내 초등학교 3, 4학년 4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영어캠프를 운영했다.

담양 외국어체험센터 소속 원어민 교사와 내국인 강사의 협력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겨울영어캠프는 담양의 학생들이 영어 의사소통능력은 물론 세계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문

화적 소양을 기르는 프로젝트 학습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모둠별 주제 활동을 통해 멕시코, 브라질, 독일의 전통공예, 새해 계획 세우기, 타코 만들기, 미산가 팔찌 만들기, 전통놀이, 스킷 공연 등 다채로운 체험을 즐기고 배움을 넓혀 ‘영어’와 ‘다문화이해’라는 일거양득의 성과를 거뒀다. /담양=정일남 기자